

WB-KWPF-KDI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워크숍, 아프리카 고위공무원에 산업수요 중심 직업교육훈련시스템 지식 공유

-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4개국 정부 고위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분야 한국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 논의
- 향후 아프리카 지역의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세계은행과 한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다양한 협력사업 기대

- 기 간 : 2018년 3월 4일(일) ~ 9일(금)
- 장 소 : 서울, 경기 등
- 주 관 : 한국개발연구원, 세계은행

□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세계은행(World Bank)은 3월 4일부터 9일 까지 대한민국 세계은행 신탁기금(KWPF)의 지원으로 글로벌지식협력단지(서울 홍릉 소재)에서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4개국 고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번 워크숍은 아프리카 국가의 직업기술교육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세계은행이 지원예정인 '동아프리카 지역의 변혁 및 지역 통합을 위한 기술 프로젝트(East Africa Skills for Transformation and Regional Integration Project: EASTRIP)의 투자 및 실행 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되었다. 동 워크숍에는 에티오피아 교육부 직업기술교육훈련 차관, 케냐 교육과학기술부 직업기술교육훈련 특임장관, 세계은행 선임교육전문가 등 27명이 참석하였다.

- 동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의 직업기술훈련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기관의 거버넌스 강화, TVET 교사 연수 등을 포함한 기관별 전략투자계획(Strategic Investment Plan: SIP)을 준비하여 프로젝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 이들은 또한 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기술교육 정책,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대한 강의와 함께 한국폴리텍대학 강서캠퍼스, 경기자동차과학고, 만안자동차 등 교육현장과 산업체를 방문해서 기술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기업과의 연계 시스템을 논의하였다.
- 특히 8일 오후에 열린 발표 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아프리카 기술교육훈련기관의 도전과제와 SWOT 분석을 발표하고 국내 전문가들이 피드백을 제공하여 ‘산업수요 맞춤형’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홍성창 KDI 국제개발협력센터(CID) 실장은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기관의 전략투자계획에 있어서 산업시장 분석, 노동시장 분석의 중요성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 KDI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등을 통해 ‘아프리카 응용과학, 엔지니어링 및 과학기술분야 파트너십 (Partnership for Skills in Applied Sciences, Engineering and Technology: PASET**)’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도 그 연계사업으로 진행되었다. KDI는 향후 WB 등 주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바탕으로 협력국이 필요한 경제사회 발전전략, 분야별 정책과 제도 등 지식을 공유하고, 양국 간 공공 및 민간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기획재정부 주관 지식공유사업

* PASET(Partnership for Skills in Applied Sciences, Engineering and Technology):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직업능력개발, 과학기술 등 인적자본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2013년 세계은행의 이니셔티브로 발족되었으며, 에티오피아, 세네갈, 르완다, 케냐, 코트디부아르 등이 참여하고 있음

- 테소메 레마 우다조 (Teshome Lemma Wodajo) 에티오피아 교육부 직업기술교육훈련 차관은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세계은행과 KDI의 지속적인 협력이 계속되길 바라며, 한국과의 협력이 EASTRIP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대런 도킨 (Darren W. Dorkin)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소장대행은 “세계은행은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공유 개발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조병구 KDI 지식협력단지운영단 단장은 “KDI는 금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글로벌 지식 공유의 허브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아프리카 지역의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한국의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이 세계은행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